

대학의 지역 인재육성을 위한 산학협업 프로그램 사례와 그 시사점

최정임*, 박준훈**, 정기만***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융합경영학과
email:**651324@ut.ac.kr
**jhpark@ut.ac.kr
***kmjeong@ut.ac.kr

Examples and Their Implications of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Programs for Nurturing Local Talents at Universities

Joung-Im Choi*, Jun-Hoon Park**, Kiman Jeong***
*Dept. of Convergence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Dept. of Convergence Manage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약

학령인구 감소 추세가 뚜렷하다. 이는 2050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잠재적 대학 진학 수요라고 할 수 있는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대학의 미충원 위기, 인재의 수도권 유출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들이 각기의 강점을 살려 특성화로 길을 찾는 한편 지역 및 기업과 역할을 분담해 함께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의 역량을 지역의 역량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대학의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지역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기업, 대학이 협업하는 인재육성 프로그램은 대학과 학생에게는 폭넓은 학습의 장을 마련해주고,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재 채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이며, 지역은 지역발전의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과 지역의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대학과 기업의 취업을 연결하고 현장의 실재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협업 및 선순환 구조를 이해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 인재육성에 기여 등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서론

최근 학령인구 감소,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및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지역대학의 위기 가시화에 따른 지역소멸의 위기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은 한 지역에 있어서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자원 뿐만이 아니라 물적자원의 집약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다시 지역의 위기와 직결된다(신문규, 2013). 현실을 보면, 수도권과 지역의 경제·문화·교육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인적자원 성장 요소 투입형 전략으로 수도권에 많은 산업과 일자리가 집중되어

지역의 인재들이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반상진, 2011). 대학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신입생 충원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2021년 미충원 신입생 40,586명 중 30,458명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어 있는 데 이는 전체의 75%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지역대학의 미충원 사태는 지역 경제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교육부, 2021). 대학생 1명당 월 100만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 만약 대학생 1만 명이 감소할 경우 지역 경제에 월 100억 원의 손실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변기용 등, 2016, 강원연구원, 2019).

지방대학의 경쟁력은 경제를 비롯하여 사회문화 자원 등의 수도권 집중 경향과 이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등으로

1990년대 말부터 약화하기 시작하였다. 지방대학에 관한 연구들 역시 지방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과 지방대학 연구 결과들이 지적하는 위기의 양상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대동소이하다(김정희, 2013). 특수한 대학을 제외한 지역의 대학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모집의 어려움에 직면해있고,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지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더욱 지역의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김종세, 2013). 이는 시간이 갈수록 심각하다. 대학생의 근간이 되는 18세에서 24세 인구는 2020년 400만 명 이상이었던가 2050년 250만 명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신입생 선발 기준으로 전국의 4년제 대학은 총 198개교 있으며 이 중에서 지방대학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국내 대학교육의 3분의 2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대학은 중추 기지의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대학을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박순진, 2013).

대학은 지역 경제의 영향과 교육의 중추적 센터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만약 지방대학이 고사하게 되면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올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역의 지자체와 정부는 지방대학을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방대학과 지역 지자체 및 기업과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위기 인식에서 대학과 지역의 협업, 대학과 기업의 협업을 통한 인재 육성과 대학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과 지역의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에 위치한 기업에 취업을 연계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의 경제적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과 지역의 위기 속에서 지역과 대학이 협업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등 대학이 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과 대학, 그리고 기업이 연계한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찾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의 발전, 인재육성의 활성화, 대학과 기업연계를 통한 취업 성공, 그리고 지역, 대학, 기업의 다양하고 새로운 인재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2. 대학과 기업의 인재육성

2.1 대학과 기업의 협업

기업과 대학의 연계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정보를 제공, 그리고 기업이 제공하는 전문·심화 교육 등이 가능함으로써 인재육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먼저, 충주에 위치한 국립대학교인 OO대학교는 기업연계형 연구개발(R&D)을 진행함으로써 인재육성에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대학교의 인력양성사업단은 중소기업부에서 지원하는 기업연계형 연구개발(R&D) 인력양성 사업에 과제명 '수송용 에너지저장 시스템'으로 2020년 5월 선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총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림 1] 기업연계형 R&D 인력양성사업 현장 사진

인재육성을 위한 기업과 대학의 연계는 화공신소재고분자공학부, 전기공학과, 교통시스템공학과를 중심으로 충북, 충남, 경북 등 중소기업 총 12곳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5년 동안 산업계가 요구하는 현장 중심의 연구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으로 연결하는 고급인력 양성의 신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대학원생을 공동 선발하고 캡스톤디자인, 기업애로기술 해결,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특히, 사업에 참여한 대학원생의 80% 이상이 졸업 후 동종 중소기업에 채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기업과 대학 양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기업은 안정적으로 양질의 우수인재를 확보하여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대학은 취업이 보장된 기업과 사전적으로 협업을 함으로써 지속성 있는 산학협업의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한 인재육성은 대학원생들에게 현장 밀착형 공학교육을 제공하여 중소기업들이 소재·부품·장비를 국산화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번 사업을 위해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0년 3월에 국내 대학교로는 처음으로 한국전지산업협회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충

북테크노파크 차세대에너지센터,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 R&D 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이차전지센터와 학생 교육실습 및 취업연계 관련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한국교통대학교, 2020). 이러한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기업과 대학의 협업을 통한 지역대학의 인재육성은 기업과의 취업연계로 이어지는 연계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의 대학과 기업의 연계 사례는 충주시가 기업과 대학의 연결을 지원해 인재육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기업 채용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2021년 6월 한국OO대학 충주캠퍼스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특강’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6개 기업이 참여하여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연계 맞춤형 교육으로, 찾아가는 기업특강을 통해 대학과 학생들에게 지역 내 우수 기업을 알리고 이해도 제고 및 긍정적인 인식 전환으로 지역 인재육성 및 지역내 정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충주시에 소재한 (주)OO지앤디(승강기 부품 제조), (주)에스비씨OO(직선운동베어링 제조), OO제약(의약품 제조), (주)OO티·(주)OO원(이차전지 소재 제조), 농업회사법인(주)비전OO(과실발효주 제조) 등 6개 기업이 참여했다.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은 대학으로 직접 찾아가 기업을 소개하고, 취업과 관련해 인재상과 채용계획 등 실제 채용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대학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취업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충주시청, 2021).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들은 실질적인 취업준비생으로서 그들이 궁금한 사항과 동시에 참고할 만한 현장 기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었던 것이다. 기업과 대학의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비대면으로 사회적 환경이 변모하고 있는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진로선택을 앞둔 학생들이 취업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며, 이것은 다시 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서 취업함으로써 다시 지역과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이 될 것이다.

2.2 대학과 지역의 협업

대전시는 지역과 대학이 서로 상생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지역혁신의 핵심동력이 되고 대전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학 간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 지원협의회가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논의하고 2021년 11월 대전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육성 지원협의회를 진행했다. 대전시장과 지역의 OO대 총장과 대전시 교육감 등을 포함하여 지역대학의 총장과 지역산업기관 대표 등 20명이 참석해 대학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가 다시 지역(대전)에 취업하여 정착할 수 있는 일자

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2년 대학혁신, 지역혁신, 협업의 3개 정책영역에 10개 과제, 35개 사업이 추진되며 시비 462억 원 포함 총 1,495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대전 청년정책의 성과 및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지속 확대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 총회 등 대학의 협조와 홍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전시와 지역대학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과 대학의 협업을 통한 인재육성을 기대하고 있다(대전시청, 2021). 이러한 지역과 대학의 협업 프로그램은 지역대학의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지자체와 대학의 상생과 협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결과적으로 대학이 육성한 인재가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 협의회 사진

3. 새로운 시도: 대학과 고교의 협업

본 연구의 주요연구 내용은 지역, 대학, 기업이 협업하는 프로그램을 사례들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지역과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및 기업과 연계한 사업 이외에도 대학의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

현재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이것을 고교생을 위한 제도로만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교와 대학을 이어주는 새로운 시도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사례로 2022년 5월 과산중평교육지원청은 한국OO대학교와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진행했다. 고교학점제 업무 협약은 충북의 고등학교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의 다양한 진로를 지원하는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를 말한다(고교학점제, 2020). 이러한 연계를 통해 새로운 학생선택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과산중평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의 고교와 대학이 서로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고교학점제 점진적 이행 및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학생 요구의 맞춤형 교육과정과 실효성 있는 진로 교육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고교와 대학을 연결하는 고리가 형성되고, 이



[그림 3] 고교학점제 협약식 사진

는 다시 대학과 지역 및 기업을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어

우리나라 인구통계학적 특징 중에서 가장 극적인 것 중의 하나는 절벽에 가까운 인구감소 추세이다. 이는 곧 학령인구 감소로 직결되면서 많은 대학이 생존의 여부를 걱정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소한의 신입생 충원을 못하는 대학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대학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대학들이 각기의 강점을 살려 특성화로 길을 찾는 한편 지역 및 기업과 역할을 분담해 함께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고, 대학의 역량을 지역의 역량으로 확장하는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대학의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지역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대학과 지역의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지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구성원 당사자들의 상생 방안과 인재 육성 및 공급에서의 대학의 기능적 역할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노력 중의 새로운 시도로서 대학과 지역 고교의 협업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겠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22년 한국교통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참고문헌

[1] 신문규(2013). 지방대학 위기와 현실. 제4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지역대학,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자료집, 55
 [2] 반상진(2011). 지역화에 따른 고등교육의 요구와 과제. 한국교육학회 2011, 학술대회 자료집.

[3] 교육부(2021), www.moe.go.kr,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보도자료.
 [4] 강원연구원(2019), www.rig.re.kr
 [5] 변기용·이석열·송경오·변수연(2016). 지역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본 현행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평가체제 발전 방안. 지역발전위원회 정책보고서.
 [6] 김정희(201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연구. 지방정부연구, 17(1), 105
 [7] 김종세(2013). 지방대학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대학육성법안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52, 1
 [8] 박순진(2013). 지방대학 발전 방안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대학교육, 180, 57-64.
 [9] 한국교통대학교(www.ut.ac.kr), 인력양성사업단 보도자료, 2020.
 [10] 충주시청(www.chungju.go.kr), 일자리종합지원센터 보도자료, 2021.
 [11] 대전광역시청(www.daejeon.go.kr), 청년정책과 보도자료, 2021.
 [12] 교육부 고교학점제, www.hscredit.kr
 [13] 괴산증평교육지원청, www.cbjie.go.kr